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⑰ 답은 자기 마음에 있다

어디로 갈까나

"이제 큰일이네,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건지..."

M씨는 고민이 되어 속이 탈 지경이었다. 갑자기 실직한 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 다음 주에 드디어 새 회사 면접을 보러 가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가고 싶은 두 회사에서 같은 날에 면접을 보러오라는 통지가 왔다. 시간까지 비슷한 오전이었다.

두 회사의 거리가 떨어져서 두 군데 다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만일 잘못해서 정작 될 곳을 놓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미 사십이 넘는 나이에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형편이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내가 취직할 회사인가?" 머리를 싸매었지만 알 수가 없었다.

스님께 찾아갔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스님, 부탁입니다, 스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 "거사님, 거사님이 조심자라면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것이지만, 거사님은 십년 넘게 참선을 열심히 하시는 줄로 아는데 왜 마음에 있는 부처님, 참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오,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진짜 나, 참 나라고 했다. "스님, 참 나라는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요, 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동안 참선한 것은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서 했지 제 속에 부처님은 모르겠거든

요?" "아시든 모르시든 거사님이 나무라면 뿌리가 마음이에요. 자기 뿌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스님, 전 급하거든요. 인연 있는 회사를 물어보고 싶어요." "부처님이 여기 계시도 바로 거사님 마음뿌리에 써 있는 인연을 보고 답하지 다른 사람 것을 보시겠어요? 그러니 부처님께 묻고 싶거든 자기 마음에 물어보면 돼요."

답은 마음에 있다

결국 M씨는 스님이 3일만이라도 열심히 정진해 보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도와주신다고 했다. 어차피 다른 방

두 회사 면접 같은 날 ...택일 고민

갈 길 찾기 위해 3일간 마음 정진

"답은 마음속에 있다" 깨달음 얻어

법도 없었다. 아예 아침에 절로 출근했다. 사시 불공을 드리고 법당 문을 닫을 때까지 마음 정진에 들어갔다. 다행히 그동안 참선하여 마음을 모으는 데에는 익숙했다. 스님 말씀처럼 "어디입니까? 참나, 자성(自性) 부처님!" 하고 마음 깊이 물어보게 되었다. 첫날엔 자꾸 불안하고 의심이 들었다. '참나 마음에 답이 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니 '정신차리자! 이번엔 안

되면 누가 먹여살리나!' 하고 울려댔다.

다음 날에는 체면이고 뭐고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게 되었다. '참 나, 제 속에 계신 부처님! 저 이번엔 안 되면 죽어요. 가르쳐주세요!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좌선할 때는 물론 공양할 때나 잠시 걸을 때나 정신없이 "어디니까? 어디?" 하고 묻고 있었다. 밤에 돌아올 때도 집에 와서도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법당에 앉아 거의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어디예요? 어디?" 하고 묻는데 문득 그 말이 매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저절로 마음속에서 어디? 어디? 하고 되는 것 같았다. 동시에 놀랄 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속에서 힘이 솟아났다. 내가 너무 집중하다 이상해진 것 아닌가 했으나 정신은 맑고 또렷했다. 계속 집중해서 물어보았다. 그러다 앉은 채 깜빡 졸았던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지 깨어야 하면서 눈을 뜨는 순간 앞에 커다란 화살표가 있었다. 길 위의 이정표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뚜렷하게 '2'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M씨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곧 뜻을 알 수 있었다. 2는 바로 두 번째 연락 온 회사였다.

자신의 마음이 나침반

"만일 날이 이런 얘기 했으면 절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고 보니!"

현재 2번 회사가 다니고 있는 M씨는 자력과 타력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디 가서 묻거나 부처님께 기도해서 답을 알아도 그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 있는 내용이다.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외부에 물어야 하는 것이다. 원래 답은 자신 안에 있다. 문제는 얼마 나 마음을 비우고 집중해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이다. M씨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법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문도록 해라. 자신의 마음이 나침반이다."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결식·탁발' 의식주 해결 역부족

중국 선종 노동의 연원

중국불교 역시 인도불교의 전통에 입각하여 출가 사문이 생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풍조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불교, 특히 선종의 경제생활 방식은 기나긴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인도 불교의 무노동 전통에 의해 스님들이 생산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출가 사문은 이른바 "방외지사(方外之士)"로서 많은 세속적 의무를 면제 받았다. 즉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해서 승단(僧團)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승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승단 자체의 생존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동진(東晉)시대부터 승려 개인의 농경, 상업 및 무속 행위 등의 경제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균전제(均田制)를 시행하여 승려들이 땅을 나누어 받았으며 면조(免租), 면역(免役)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기다가 사원이 받은 보시 등은 사원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 지 얼마 안 가 당황조는 양세법(兩稅法)을 실행하여 조정에서 특허해 준 사원을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내게 하였다. 단 스님들 개인은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기에 이른다.

그러나 인도와 다른 문화 풍토 속에서 일하지 않고 수행에만 전념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을 받는 승가를 향해 비불교(非佛敎) 집단의 비판이 가해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한 비판은 불교가 거국의 중심 종교로 발전된 당대(唐代)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여인이 베를 짜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은 추위에 떨게 되고, 한 남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지금 석가의 가르친 법에는 베를 짜지 않게 하고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경전에 곡식을 재배하는 법이 없어 밭에는 경작하는 농부가 없고, 불교의 가르침에 베 짜는 방법이 없어 베 짜는 부인들은 일을 포기하고 있다. 밭우를 들고 주장자를 짚어 결식함에 누구에게 의지하며,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침에 어떻게 (천을) 얻겠는가. (法林·龍正論·廣弘明集) 제13권, <大正藏> 제52권, p 182중)

그러나 인도와 다른 중국의 자연환경과 문화풍토에 의한 수행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에 의한 생산불교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근본적으로 결식이냐 탁발을 해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왕실이나 사대부 등 단월(檀越)들의 시주에 의한 재정적 후원으로 사원경제가 운영되었다. 설사 신도들의 재정적 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경제생활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행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농경산업을 통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진시대 이후 승니(僧尼)가 "논과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와 같고, 혹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재물을 추구함에 상인들과 같이 이익을 다룬다" (道安·二教論·廣弘明集) 제8권, <大正藏> 제52권, p 143)라는 비판적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일부 승려에 국한된 일일지언정 승려들이 농사를 짓고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국불교의 노동과 생산업의 종사에 대한 경전(經典)적 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법화경> '법사공덕품'에 "자생산업(資生產業)을 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설하는 법이 그 뜻을 따라 다 실상(實相)과 같아서 서로 여긋 나지 않으며, 혹은 세간의 경사나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나 자생산업(資生業) 등을 설할지라도 모두 정법에 따르게 되리라. (法華經·法師功德品)"

이와 같이 대승경전에서는 생산활동에 의한 치생산업을 긍정하고 대승불교 특유의 노동관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화경>의 '자생업(資生業)' 사상은 중국불교에서 수용되어서 노동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천태지자(天台智者)는 그의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지혜를 수행할 때 권식(權實)의 두 지혜를 궁구하여 통달하고, 내지 세상의 지혜와 치생의 산업이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治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 (法華玄義·大正藏) 제33, p 733중)

<법화경>의 이른바 "자생(資生)의 업(業)", 즉 노동생산이 바로 정법(正法)이라는 말을 천태는 모든 "치생의 산업(治生產業)이 실상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화경>의 생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의 기초위에 <화엄경> '정행품'은 생산노동에서 더 나아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수행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

로 결식이냐 탁발을 해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왕실이나 사대부 등 단월(檀越)들의 시주에 의한 재정적 후원으로 사원경제가 운영되었다. 설사 신도들의 재정적 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경제생활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행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농경산업을 통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진시대 이후 승니(僧尼)가 "논과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와 같고, 혹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며 재물을 추구함에 상인들과 같이 이익을 다룬다" (道安·二教論·廣弘明集) 제8권, <大正藏> 제52권, p 143)라는 비판적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일부 승려에 국한된 일일지언정 승려들이 농사를 짓고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국불교의 노동과 생산업의 종사에 대한 경전(經典)적 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법화경> '법사공덕품'에 "자생산업(資生產業)을 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설하는 법이 그 뜻을 따라 다 실상(實相)과 같아서 서로 여긋 나지 않으며, 혹은 세간의 경사나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나 자생산업(資生業) 등을 설할지라도 모두 정법에 따르게 되리라. (法華經·法師功德品)"

이와 같이 대승경전에서는 생산활동에 의한 치생산업을 긍정하고 대승불교 특유의 노동관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화경>의 '자생업(資生業)' 사상은 중국불교에서 수용되어서 노동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천태지자(天台智者)는 그의 <법화현의(法華玄義)>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약 지혜를 수행할 때 권식(權實)의 두 지혜를 궁구하여 통달하고, 내지 세상의 지혜와 치생의 산업이 모두 실상과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治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 (法華玄義·大正藏) 제33, p 733중)

<법화경>의 이른바 "자생(資生)의 업(業)", 즉 노동생산이 바로 정법(正法)이라는 말을 천태는 모든 "치생의 산업(治生產業)이 실상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화경>의 생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의 기초위에 <화엄경> '정행품'은 생산노동에서 더 나아가 일상적 생활 속에서 수행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

산영게시판

● **장애이동 캠프**-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은 주의를 결집 과잉행동 장애이동'을 대상으로 꿈을 안고 내일로 우리를 데려다 한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7월 7~8일 평택 무봉산수련원에서 열린다. (02)732-7272

● **경·울·론 삼장 백고대법회**대구 법당시는 7월 4일 오전 11시 30분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 스님을 모시고 제7회 경울론 삼장 백고대법회의 입제식을 개최한다. 법당시 우담바라 합창단, 천태종 대성사 풍락합창단이 축하 음성공양에 나선다. 입제일에 법문하는 무진장 스님은 <법화경> 의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100일 동안 법말 30년 이상의 스님 100인이 경·울·론 삼장을 똑같이 다루며 강의한다. 이번 백고대법회는 10월 18일까지 법당시 큰법당에서 이어진다. 한편 대구 법당시는 백점(우라본)을 맞아 49일 기도도 진행한다. 7월 10일 입학해서 8월 27일 회향할 예정이다. (053)766-3747

● **불광사 티베트 성지순례**-서울 불광사가 9월 4~14일 티베트와 실크로드 성지순례 일정을 확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포탈라궁, 수도 라사, 시가체 조강사, 안드록초 호수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티베트에서 5박 6일의 일정을 마친 후 실크로드의 대표적 성지인 둔황과 우루무치로 이동할 계획이다. 최근 개통된 하늘열차를 타고 티베트에서 돈황으로 이동한다. (02)417-2551

● **사찰중수 약초체험 프로그램**-동명대학교가 7월 21일 제차 사찰중수 약초체험 프로그램을 평창 월정사 일대에서 펼친다. '건강 찾기 자연 속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차 사찰중수 약초체험에는 '사찰문화재와 풍수지리 해설' 약초 기행 체험 '월정사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02)725-7011

● **월정사성보박물관 어린이교실**-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은 7월 26~29일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재학 중인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박물관 교실 '어린이 문화 체험'을 마련한다. '하심을 배우는 108배' '상원사 옛길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33)334-1817

아! 위대한 5,343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金剛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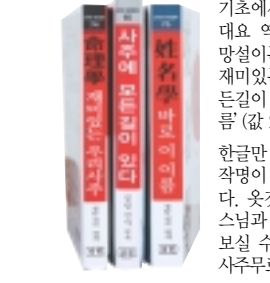


● 특별보급가 : 5,000,000 ▶ 2,100,000원
10쪽 병풍 (폭넓이 : 44cm / 높이 : 57.2cm) ※선착 35점 한정 판매합니다.

서예작가 정담스님이 열폭 병풍 5,183주 금강경 작품법을 45여일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쓴 작품입니다. 불자님 누구나 부담없이 소장할 수 있게 대승불교의 핵심인 장엄한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에 한 점 소장하십시오. 영원불멸의 재산이치가 될 것입니다. 초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스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84나눔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김근현(정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7-27번지 삼봉사 금강불교문화연구회 전화 : (051)806-0316 / 휴대전화 : 011-488-0316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서는 당초,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 것이 있다'(값26,000원) '명명학 바로 이리' (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열어서 있습니다. 웃길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로 강정해 드립니다.

불기 2551년 丁亥年 8월 27일 우란분절 7월백중(하얀거제) 미타제일을 앞두고 사찰이나 불자님들 가정에 대승불교의 핵심 금강경 병풍 하나씩은 두시어 49제(천도의식)이나 조상님들의 제사를 올리세요.

금강경종자, 백복도에 이어 서예작가 정담스님이 동진출가하여 30여년간 꾸준히 써온 금강경을 열폭 병풍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1 법會因由分(법회인유분)에서 마지막 제32 應化非眞分(응화비진분)까지 흑자에 찬란히 빛나는 금본으로 5,183주 金剛經(금강경) 한자 한자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써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21세기 최고급 작품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금강경은 우리 인생 삼라만상에 대한 실상을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살아가는 삶의 진실을 밝히시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밝은 마음 살림살이를 우리들에게 몽땅 털어놓으신 경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무한한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 마음속의 음달인 재앙과 업장이 소멸되고 우환이나 번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16 能淨業障分(능정업장분) 업장 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데는 금강경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제8 依法出生分(의법출생분)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도 모두 이 金剛經에서 나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제, 천도의식, 참선, 기도, 열불, 경전공부 등 불교교리의 거대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니다. 오랜세월 법화경을 끌고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80생에 팔만대

장경 49년을 분류해 보면 아함부 12년, 방등부 8년, 반야부 21년, 법화부 8년 합해 49년입니다.

불교중심의 핵을 이루는 금강경은 반야부 21년 여기에 속하고 600백권의 방대한 반야 사상 경전에 금강경은 제 577권에 해당됩니다.

금강경은 불교 교리를 거대한 수미산 산맥에 비유해 볼 때, 그 산 정상에 향해 올라가는 여러 길중에서 바로 질러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깨달음의 길이 금강경입니다. 金剛般若波羅密經은 부처님의 八萬大藏經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정담스님의 마지막 작품 금강경 병풍을 이번 기회에 한점씩 소장 하십시오.

금강경을 독송하기 어려우면 사구(세사행사)라든 지너 외우면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곧 공덕을 짓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성불한다고 설하셨습니다.

<p>◎ 제11 사구계 : 如理實見分 (여리실견분) 제5</p> <p>凡所有相 皆是虛妄 (가시허상)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견견여래)</p>	<p>◎ 제12 사구계 : 莊嚴淨土分 (장엄정토분) 제10</p> <p>不應住色生心 (불응주색생심)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應無所住 (응무소주) 而生其心 (이생기심)</p>	<p>◎ 제13 사구계 : 法身非相分 (법신비상분) 제26</p> <p>若以色見我 (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 (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 (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 (불능견여래)</p>	<p>◎ 제14 사구계 : 應化非眞分 (응화비진분) 제32</p> <p>一切有爲法 (일체유위법) 如夢幻泡影 (여몽환포영) 如露亦如電 (여로역여전) 應作如觀 (응작여관)</p>
--	---	---	---